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93)

제3부 :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33 (3)서귀포지역도 예외 아니-(28)서산벌른내를 찾다
수십미터 낭떠러지 위에 日 갯도가...

입력 : 2008. 02.14. 00:00:00



▲송이층을 뚫고 구축한 서산벌른내 갯도 내부.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서산벌른내 계곡 상단부서 갯도3곳 찾아내 내부 바닥은 갯목 천지... 발디딜 틈도 없어

'협곡의 기세가 한라산을 갈라놓았다'해서 붙여진 이름이 산벌른내다. 산벌른내는 한라산 정상 남벽에서 이어진 방애오름에서 시작된다. 방애오름 서쪽에서 시작된 것이 서(西)산벌른내, 동쪽이 산벌른내다. 두 계곡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은 해발 약 6백10m 일대다.

특별취재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산벌른내 합류지점 일대 계곡 단애면 상층부를 탐사했다. 서귀포시권 내륙부의 중심부에 위치한 미악산을 거쳐 서산벌른내에 이르는 코스다.

미악산에서 바라본 한라산 백록담은 쌓인 눈으로 인해 햇빛을 받아 하얀 성채처럼 반짝인다. 그 남벽 아래로 거침없이 내리뻗은 서산벌른내의 협곡이 마치 산을 갈라놓은 듯 깊이 패였다.

발 아래는 20~30여m는 족히 되는 낭떠러지다. 아찔한 광경에 탐사팀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계곡 단애면 약간 비탈진 상부를 따라 조심스레 나아가자 입구가 일부 무너져 내린 갯도가 나타났다. 고도계는 해발 6백8m를 가리킨다. 갯도는 10여m 거리를 두고 1곳과 70~80여m 정도

떨어진 지점서 1곳 등 모두 3곳을 찾아냈다.



▲60여년 전 세워진 갯목이 밀둥만 남아 있다

'한라산을 쪼개냈다'는 산벌른내에서 일본군 갯도를 찾다니.... 믿기지 않는 광경에 취재팀뿐 아니라 이날 같이 탐사에 나선 제주도산악연맹 및 서귀포지역 산악인들도 놀라움을 나타냈다.

이날 찾아낸 서산벌른내의 갯도는 길이가 10여m와 20여m 되는 소규모다.

그런데 이곳의 갯도는 소규모 임에도 눈길을 끌었다. 그 가운데 단연 압권은 기역(ㄱ)자 에 가까운 형태로 하향전개된 길이 20여m 갯도. 송이층으로 된 갯도 내부로 조심스레 진입하자 취재팀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다. 바닥은 온통 발디딜 틈도 없이 갯목이 널려 있었다. 60여 년이 지난 탓에 많이 삭아버린 소나무 등 갯목은 둘레가 50cm 안팎, 길이는 1백 60cm 안팎이다.

이러한 갯목은 벽면에 기둥을 세우거나 천장을 잇대기 위해 실제 사용했거나 사용하기 위해 쌓아뒀던 목재다. 이 갯도는 3곳 가운데 중심역할을 했던 갯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갯목을 세우는 등 갯도를 구축하다가 패전을 맞자 부랴부랴 떠난 것이다.



▲서산벌른내 갯도내부 바닥에 갯목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이처럼 많은 갯목이 남아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갯도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이야기가 된다.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일본군이 철군한 뒤 갯도 내의 갯목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에 의해 건축자재나 땔감용으로 이용됐다. 갯목의 인기가 높아 서로 차지하려고 이웃 사람들끼리 다툼도 잦았다고 한다.

갯목은 60여년 세월이 흐른 탓에 많이 삭아있었다. 또한 벽면에는 곡괭이자국도 선명히 나 있어 거의 맨손으로 작업했음을 알 수 있다.

이곳 갯도 가운데 맨 위쪽의 것은 대부분 현무암반으로 돼 있다. 균열이 심해 내부로 조심스레 진입하자 바닥에는 썩다 만 갯목이 세워진 채 40cm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중간지점의 갯도 역시 송이층으로 된 일자형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 일대에는 어떤 일본군이 주둔했을까.

1945년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일본군 군사지도인 '일본군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를 보면 미악산 일대는 108여단사령부 주둔지로 나타난다. 그해 6월 중순 이후에는 일본군 96사단으로 대체된다. 또한 갯도가 확인되는 지점에서 미악산 정상까지는 거리가 약 1.4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 볼 때 서산벌근내의 갯도는 미악산을 복곽진지로 한 일본군의 전진기지로 구축됐음을 알 수 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낸 서산벌근내의 갯도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이 한라산의 거대한 협곡마저 군사요새로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일본군들은 오름이나 해안가는 물론이고 한라산과 계곡 등 무차별적으로 제주땅을 헤집어냈다.

/특별취재팀=이윤희·표성준·이승철기자

[현장 인터뷰]

"일제 야욕·아픈 제주史 실감"

도내 산악인들, 취재팀과 탐사 나서

서산벌근내 일대 탐사에는 제주도산악연맹 및 서귀포지역 산악인들이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

오윤희 서귀포백록산악회장을 비롯 김창만 영천산악회 전회장, 제주대 법대 오창수 교수 등 일행은 지난 10일 서산벌근내 일대 계곡 단애면 상층부에서 일본군 갯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진 왼쪽부터 오문필 한라산등산학교장, 김창만·오윤희씨, 오창수 제주대교수.

오 회장은 "지금껏 산행을 하면서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아 일본군이 파놓은 갯도를 실제 접해보지 않았는데 이제야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또 "서귀포 지역의 경우는 해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일부 알려졌을 뿐 오름 등지에는 아직 실태파악조차 안된 걸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조사는 물론 제주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조명,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창수 교수도 "일본군 갯도를 본 것은 처음"이라며 "이런 깊숙한 곳까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갯도 안으로 직접 들어가 갯목들을 보니까 60여년 세월의 흐름과 느낌이 온 몸으로 다가왔다"며 "당시 일본군이 침략전쟁을 위해 제주섬을 얼마나 파헤쳐놨는지 그들의 전쟁야욕과 제주역사의 아픔과 고통이 생생히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